



[라이프]
홍술·저도수·와인
주류업계
취향저격 술판 키운다
니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새학기 가방·옷 준비하세요”

서울 초등 입학생에 20만원 쏜다

서울시 교육청, 2022년 계획 발표
중학교 신입생 스마트기기 지원
공립·사립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2년 시무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게도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한다.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는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공립·사립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서울교육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인공지능(AI)·에듀테크 기반 개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중학교 신입생과 중학교 교원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하고 학습에 활용하는 ‘디벳’(디지털 벅)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도 입학준비금을 20만원씩 준다. 지난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

각 30만원씩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입학준비금을 받는 초등학교 신입생은 6만8800명으로, 총 소요 예산 규모는 140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4대 3대 3의 비율로 부담한다.

입학준비금은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된다. 각 학교에서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제공된다. 3월 입학 후 학

교와 센터에 신청하면 4월 중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올해부터는 공·사립유치원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금액도 기존 연 38만7000원에서 연 73만1000원으로 189% 인상된다. 지원대상도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비가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된다.

학교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교육의 격차 없는 출발선’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20명 이하 초등 1학년 학급이 있는 학교를 전체의 56.6%까지 늘리고, 내년 70.1%, 2024년에는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서울학생 1예술키스포츠’ 참여를 권장하고, 비만이나 척추측만학생의 검진비를 지원하는 ‘서울학생 건강+’ 등을 운영한다.

/이현진 기자 ihj@metroseoul.co.kr

서울 자치구 코로나 대응 인력에 포상·승진

전담인력 1인당 400만원 포상금 지급
간호·보건공무원 승진비율 확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아이가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전담인력 처우개선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은 ▲자치구 전담인력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승진심사 시 우대 ▲재택치료 기간제 간호사 임금 인상 ▲퇴직 의료인력, 기간제 등 현장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선별검사소,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대응 전담인력을 10개월 이상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1인당 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대상은 간호·보건 공무원으로 자치구별 50명, 총 1250명 규모의 7급 이하 실무공무원들이다. 근무시기에 따라 올해 1월 또는 6월에 포상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치구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보건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기간제 간호사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학조사관(간호사)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전년 대비 43%)한다.

현장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시는 서울일자리 포털 내 코로나19 의료인력 분야 플랫폼을 구축해 일할 의사가 있는 경력 단절 간호사 등 퇴직 의료인력 매칭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간제 의료인력 총 626명도 증원한다. 역학조사, 재택치료, 선별검사소 등 코로나19 대응분야 중 업무 피로도가 높고 인력 증원이 절실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도입... 주택공급 확대

5000㎡미만 소규모 필지 대상
역세권 범위 3년간 350m 이내

서울시는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미만 소규모 필지가 그 대상이다. 상가·공장 밀집지역 같이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하다. 이는 시가 지난달 30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따른 것이다.

우선 시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다른 프로젝트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키로 했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고,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아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으로도 공급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영종도 인구 10만명 목전... 인천 중구의 69%

입주물량↑... 올해 1만명 증가 예측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등록인구 10만 명 돌파가 조만가에 들어갔다. 2021년 12월 말 현재 영종국제도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99,204명이다. 1월부터 1,153세대의 운서동 SK1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이달 중에 10만 명은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중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중구의 총

인구는 143,633명으로 영종국제도시의 인구가 원도심(44,429명) 두 배가 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67.3%에서 69.1%로 증가했다.

2022년은 17,000명 가까이 인구가 급증했던 2018년에 이어 인구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역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영종국제도시에 올해 공동주택 입주물량은 총 4,414세대에 달하며 오피스텔이 속속 완공되면서 올해만 1만 명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김창근 기자 mirex@

“경기도 공공버스, 카드 찍지 말고 타세요”

비접촉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 추진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김포지역을 시작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탑승 시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비접촉(태그리스)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한다.

‘비접촉(태그리스)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버스 탑승객들의 편의를 대폭 증진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앱’을 설치한 후 선·후불형 교통카드를 등록

하면, 버스 승차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별도 카드 접촉(태그) 없이 자동으로 승차차 처리·결제가 이뤄지는 것이 골자다.

서비스 대상은 전체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중 2층버스와 양문형 차량을 제외한 총 212개 노선 1,760대로,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1월 6일 (목)
음력 : 12월 4일
수도권 날씨 -5~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1/3, 동두천 -8/4, 가평 -9/4, 파주 -10/3, 서울 -5/4, 양평 -7/4, 수원 -4/3, 용인 -4/3, 평택 -8/4, 백령도 1/3, 인천 -4/2



▲트럼프, 美 의회 경관에 또 피소... 폭동 1년 기자회견은 취소 /사진 뉴스
▲보이콧에 초라해진 美 골든글로브... 무관객에 방송사 중계없다

▲서방-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 협상에 EU 배제 논란
▲대만, 동성부부에 무연고 아기 입양 첫 허용



▲중국서 6년 만에 한국드라마 방송... 한한령 해제되나
▲中 시안 주민, 2주 봉쇄에 식자재 부족... 스마트폰을 쌀과 교환 /사진 뉴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